거듭남(III) - 거듭난 자의 영성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듭남 세 번째로 '거듭난 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특히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내용까지 다 들춰내서 새롭게 해석되고 소개되고 있고, 영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아마 기독교인의 신앙이 삶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핍에 대한 갈증이 영성에 대한 갈망으로 표현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그 정의가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꼭 그렇게 어려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삶으로 표현되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모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죽어도 마음에 모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모성이 있어서 그 모성으로 남동생을 보살핀다고도 하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모성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생겨서 자식과 관계하게 되면서 마음에 모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질이 생겨납니다.
또 엄마, 아빠 밑에서 재롱떨던 아기가 유치원을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사람 집단을 관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이 아이 속에 생겨나는 성질이 뭐냐 하면 바로 사회성(社會性)입니다.
또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부성이 생깁니다.
무엇인가를 관계하게 되면 그 관계하는 대상에 대한 성질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관계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아이를 관계하게 되는 여자 속에 모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관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영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어떻게 삶에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인 내 몸을 매개로 해서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사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영성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 내가 누구의 아버지이고, 어느 회사의 직원이고, 어느 학교의 선생이고 하는 신분의식 자아의식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구의 아버지로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떤 학교의 선생으로서 내가 연구 활동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영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육에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단순히 일반종교와 똑같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일반 모든 종교인들은 육에서 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영의 세계를 관계하려고 합니다.
이런 영성은 종교적 영성으로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아버지를 첫 번째 '너'로 삼아서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의 영성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첫 번째 '너'로 해서 태어난 '나'로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질, 즉 영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성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이처럼'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이죠, 왜 주셨습니까? 믿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독생자를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의 '독생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생각했던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이 충족됩니다.
'독생자를 믿음으로'의 뜻이 뭡니까? 바로 앞의 14, 15절에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16절에 좀 더 자세하게 되풀이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모세가 구리 뱀 장대를 들 때에 그 구리 뱀 장대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대에 구리 뱀이 매달리듯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럼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주님께서 저렇게 처참하게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저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물과 성령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물은,
육체를 통해서 육체와 만나는 첫 번째 '너'인 엄마, 아빠를 통해 '나'가 만들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형제와 친구와 등등이 가득 만들어졌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 통에 보면 '나'라는 의식을 채워주는 수없이 많은 '너'들이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매달려 죽음을 통해서 이 '너'와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육체를 중심으로 '나'라고 생각해 왔던 그 '나'가 주님의 몸이 죽는 것과 연합해서 죽음으로 다 없어졌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는 이 물의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쁨을 이 땅에서는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 내가 애인이라는 '너'를 만난다면, 그래서 애인인 '너'를 통해 '나'가 됐다면 그 관계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아빠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 관계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사랑이 곧 기쁨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쁨으로 표현되게 돼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육체를 매개로 해서 나, 너 관계를 맺던 삶이 끝났다는 것은 육체가 마나는 모든 대상들로부터 더 이상 기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애인을 사귀고 있는데 그 애인이 이상하게도 다른 남자만 만나면 활짝 웃고 행복해합니다. 나와 만나면 늘 뭔가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고 시무룩합니다.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며 늘 행복해 하고 기뻐한다, 이게 바로 배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 너 관계가 다 죽어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쁨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로 죽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약속으로 주어지게 돼있습니다.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전에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 다른 대상들과 나, 너 관계를 통해 내가 생겨난 것처럼 성령님이 감각이 되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느끼게 하고 믿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대상이 되게 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대상보다도 더 확실한 대상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너'로 해서 '나'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거듭난 자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 이게 영성 아닙니까? 이 삶 속에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왜 거듭난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인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해주마!' 이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과 영생이 대별되어서 나오는데, 멸망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파괴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파괴되어지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평강과 기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거듭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삶에 반영될까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영생이라는 것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일까?
자,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 때, 상대방을 통해 '나'가 규정이 됩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나'를 규정하는 '너'의 지속성에 의해서 '나'의 지속성이 결정됩니다.
'너'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나인 성 과부가 있습니다.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여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외아들이 죽을 때 외아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죽은 거예요. 이 과부의 이름이 만약 마리아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엄마 됨이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모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같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나'가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파괴되는 거예요. '너'가 없어지면서…
그 외아들의 지속성에 의해서 '엄마 됨', 내가 엄마라는 사실이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으면 엄마도 죽는 거예요. 엄마 됨도 죽는 거지요.
그러니 이 여자는 벌써 두 번 '나'의 내용이 파괴되어 진 거예요.
과부이잖아요? 그러니 그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살았어요. '나'가 아내였습니다. 왜? 남편이 '너'로 있었기 때문에 …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서 이 여자의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아내라고 하는 부분이 파괴되어 죽어 없어진 겁니다. 아내라는 부분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좀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남편이 일찍 죽게 되니까 남편의 지속성만큼 아내 됨의 지속성이 단절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 붙이고 살 수 있는 외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외아들이 오래 살았어야 엄마로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인데 외아들이 그만 요절하게 되면서 엄마 됨도 요절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부자라고 한다면, 많은 돈이 '너'가 되어서 '나'를 부자라고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자라고 하는 '나'가 파괴되지 않고 멸망되지 않으려면 많은 돈을 오래 지속해야 됩니다. 오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인 '나'가 파괴되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교수라고 하면,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는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야 내가 교수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럼 벌써 교수됨이 내용적으로는 파괴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를 이 육체를 통해서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나'라는 인격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로 관계 맺던 그 모든 '너'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 끊어버리고 성령의 감각을 힘입어서 하나님아버지를 '너'로 해서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아버지가 이제 '나'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너'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이 '나'를 멸망시키려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망시킬 수 없는 한, 하나님의 존재가 끊어지지 않는 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로 태어난 이 '나'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단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이 멈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로 태어난 이 생명은 이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육체를 매개로 '너'를 삼아서 '나'가 된 경우에는 다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IMF 때 사업가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자살을 해요?
사업이라고 하는 '너'가 첫 번째 '너'였어요. 사업가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첫 번째 자아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미 그 사람의 첫 번째 '나'는 죽은 거예요.
첫 번째 '나'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몸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살한 겁니다.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자살이라는 건 대부분이 이미 죽은 자가 죽는 겁니다. 왜 이미 죽었습니까?
첫 번째 '나'를 규정해주는 '너'의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애인이 등 돌렸다고 자살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 애인이 첫 번째 '나'라는 의식을 구성해주는 첫 번째 '너'였기 때문에 그 애인이 문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첫 번째 '너'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육체를 매개로 이 세상에서 너와 나의 관계로 '나'의 내용을 채우고 살아갈 경우에 하나씩 하나씩 파괴되어가는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내용 중에 오늘은 이 부분이 파괴되고, 내일은 저 부분이 파괴되고,

모레는 또 다른 부분이 파괴되면서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나'가 파괴되어가는 겁니다.
파트너가 배신해서 파괴되어가고, 친구가 배신해서 파괴되어가고, 형제와 등 돌리면서 파괴되어가고, 아내가 죽으면서 파괴되어가고, 자식이 집을 나가면서 파괴되어가고, 계속해서 파괴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어서 그 '나'의 모든 관계를 끊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너'로 해서 '나'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존속하시는 동안 도대체 '나'라는 인격을 그 누구도 죽일 수도, 멈추게 할 수도, 막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거듭난 자의 영성 안에서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어요.
몸이 죽는 것은 옷을 벗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옷 벗고 샤워했습니다. 이렇게 옷 벗는 것일 뿐입니다. 죽음이라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학교 졸업하는 정도예요. 학교 졸업을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졸업 안 하고 계속 유급하면서 오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영성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제 죽음을 몰라요. 나를 규정하는 하나님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내가 몸으로 살고 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그물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던 물건이던 일이던 내 몸을 통해 접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세상 속에 나의 삶의 현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만을 사랑하셔서 나를 하늘나라로 구원하시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과 몸이 붙어서 삶을 살아가던 그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본래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봅니다.
거듭난 자는 죽음을 모르는데, 죽음을 모르고 사는 그 삶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아담이 타락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짧게 틈새로 보일 뿐입니다.
타락 이전에 살았던 모습이 본격적으로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어떠한 삶을 살았겠는가 하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후 얼마나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와가 없이 아담이 혼자 살 때였습니다.
그때 태초 이후 이 지구상에 우주 안의 피조의 세계에 최초의 선악의 판단사건이 나타납니다.
제 1호 선악판단사건이 나타나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신 일입니다.
그 판단의 내용이 뭔가 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것이 선악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은 혼자 살면서 아직 여자라는 개념도 없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만든 게 여자이고, 그 여자와 남자를 맺어주시며 '이제 남자가 장성한 다음에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언뜻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같이 죽는 것과 동일시한다,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무슨 금욕주의처럼 생각하거나 플라톤적인 이원론으로 생각해서 물질과 정신을 나눈 다음 물질은 열등한 것이고 정신은 더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육체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는 게 문제이지, 마음이 육체에 붙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께만 붙는다고 한다면 육체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으니, 좋지 않으니' 하시면서 이 몸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가 돈을 벌지 않은 것이 좋지 않으니…', 아니면 거꾸로 '네가 돈을 버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돈을 빼 가겠다.' 그때 '아멘, 할렐루야!' 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네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번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네가 병나는 것이 좋으니, 네게 가시를 주겠다.'
'왜 그러실까, 병이 안 나는 게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몸에 가시를 안고 병을 앓는 것이 좋으니… 내가 병을 주겠다.' '네게 준 계시가 너무 많아서 네가 교만해져서, 패망의 선봉인 교만을 통하여 모든 은혜를 다 까먹을까 봐, 네 몸에 병을 주지 않는 게 좋지 않으니 네게 병을 주겠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사도바울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러므로 내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아버지께서 선악을 판단하시면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네!' '나의 이 상태가 좋지 않네!', '나의 저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 좋을 것 같네!' 하고 판단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으실 것 같으시면 이루시고, 좋지 않으실 것 같으시면 빼시고, 나쁠 것 같으면 보충하시고,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에 따라 이 세상의 삶이 움직여지고 거듭난 자의 영성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호불호의 선악의 판단이 사라진 것이 영성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도대체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삶이 이끌어질 것인가 걱정하지만, 아담의 삶에서 아담이 선악을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욕망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배필로 주시기를 욕망하십니다.
필요하다면, '네가 계속 일하는 게 좋지 않으니, 너에게 휴가를 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휴가를 욕망하십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돈을 욕망하실 겁니다.
돈을 안 주시는 것은 '돈이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안 주시는 겁니다.
'병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니…' 병이 나는 겁니다.

게티즈버그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정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내용은 영성적으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담을 위한 판단' 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내 삶이 하늘에서 아버지와 너, 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마음이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에서 제삼자의 입장에서 몸으로 이루어진 내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욕망하시면서 삶이 이끌려져 갑니다.

그런데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몸으로 관계하던 '너'였던 일들은 계속 이 몸으로 관계가 지속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듭난 뒤에도 내 아내는 나와의 관계를 지속해야 되고, 내 아들도 나와 관계를 지속해야 되고, 사업장도 나와 관계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들과 관계를 해나갈 것입니까?

세 번째 영성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내 앞에서 다시 '나'가 되어서는 안돼요. 오직 나는 하나님아버지 앞에서 '나'일 뿐입니다. 그럼 아내는 육체를 바라보면서 남편인 줄 알고 다가올 때 누가 그 아내를 상대해 줄 것입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누가 내 몸을 보며 '아빠!' 하고 다가오는 아들을 상대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아들을 상대해 주는 겁니다.
물론 나는 '얘야,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나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말과 행동의 내용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진짜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100% 고스란히 다 받아서 내 안에서 태승철의 입장에서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교인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관계에서 주체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던 모습을 이제 내 몸을 예수님께서 입고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너희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난 자의 영성,
첫 번째는 죽음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규정해 주는 첫 번째 '너'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도 말하잖아요. 이 생명이 왜 내 바깥에 있습니까?
바로 '너'가 나의 생명이니까… , 첫 번째 '너'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인 성 과부에게 과부가 된 이후로는 외아들이 이 여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이 영원하려면 '나'를 규정해주는 '너'가 영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 결국은 그 '너'가 없어지면서 내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몰라요. 몸이 죽는다는 것을 죽는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럼 뭐가 죽는 것이냐?
조금이라도 아버지와 너, 나의 관계에 상처가 나는 것, 흠이 생기는 것을 깜짝 놀라며 죽는 것으로 알고 벌벌 떠는 거지요.

두 번째로, 선악을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선악, 호불호의 판단을 몰라요.
왜냐하면 너와 나의 관계로 탄탄하게 묶인 '너'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선악을 판단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욕망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조차도, 재산조차도, 건강조차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악판단과 지혜와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아이고, 잘못된 건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저주가 없고 불행이 없고 불통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안 되는 것 같은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지는 형통이에요.

사도바울이 빌립보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묶인 것이 이제 보니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형통입니다.
이 세상 식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 식의 형통이에요. 하늘 방식의 형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저주도 없고 실패도 없고 낙담할 일도 없습니다.
항상 성공이에요. 사도바울처럼 가시를 몸에 안게 되었습니까? 성공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그 많은 은혜를 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니 성공이지요.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몸이 아픈 게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아버지가 판단하시면 건강을 욕망하시게 될 겁니다.
팔이 모자라 구원이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나’가 이 세상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가 되셔서 내 가족을 상대하시고 내 친구를 상대하시고 나의 사회성을 결정하시고 사업장에 나가든 학교에 나가든 시장에 나가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세상 말로 대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대박이 성철 스님이 평생 해도 도달하지 못했던, 석가모니가 평생 살았어도 도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 내게로 축복이 되어 이루어지는 이 현실이 무엇 한 가지를 하면 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구리 뱀 장대 바라보듯이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로 관계하는 모든 ‘너’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선악판단이 죽은 자입니다. 다 죽은 잡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는 일만 중단 없이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의 단계 지나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대상보다 더 확실하게 해주셔서 ‘너와 나’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죽음을 모르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이 이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을 당신이 선악판단을 하시면서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항상 선악판단 하신 다음에 악으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선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나온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내 아들이 횡재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횡재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횡재하는 거지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횡재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풍성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을 다 상대해 주시니까요. 그들이 다 횡재하는 것 아닙니까? 나도 횡재하고 그들도 횡재하고,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십자가 하나 바라보면 된다 이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로 원 복음방송을 일 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방송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더욱 더 삼중축복의 영적 대박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그 사랑하지 못해 안달이 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

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